

창업가정신과 창업의도에 관한 연구: 패널데이터 회귀모형을 중심으로

이준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과정)*

국 문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창업가정신과 창업의도의 관련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련성은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개념적으로 다루어졌으며, 실증적으로도 검증되어왔다. 하지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별화된다. 첫째, 창업의도의 개념적 정의(직업선택과정에서의 창업의사결정)에 부합하도록, 창업을 취업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으로써 조작화하여, 창업의도 변수를 측정하였다. 둘째, 직업선택이라는 ‘구체적인 행동’에 대한 선호를 묻는 설문을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창업에 대한 선호를 단선적으로 묻는 기존의 연구들과 구별된다. 셋째,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논의 및 분석의 기회를 확장하였다. 넷째, 이타적 성향을 창업가정신의 범주에 함께 포함시켰다. 실증분석 결과, 성취욕구가 강하고 내부통제성향이 높으며 위험감수성이 높고 자율적 성향이 많을수록, 창업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혁신성과 적극성은 창업의도와 통계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타적 성향은 창업의도와 음(-)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민간부문의 투자자들과 정부의 창업정책 담당자들이 가진 유인체계와 관련하여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핵심주제어: 창업가정신, 창업의도, 성취욕구, 내부통제, 위험감수성, 자율성, 이타적 성향

1. 서론

최근 들어 대한민국의 창업생태계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에서 함께 급격한 양적 팽창이 나타나고 있다. OECD(2018)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2018년 벤처캐피탈 투자액은 2010년 대비 약 2.5배 증가하여, 절대적인 투자총액과 GDP 대비 비중(약 0.08%)이 모두 OECD 국가들 가운데 동일하게 상위권(4위)을 기록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정부의 창업정책 예산도 2017년 6,158억에서 2018년 7,797억으로 약 20% 이상 급격히 증가하였다.

민간투자회사(벤처캐피탈)의 주된 사업목표인 성공적 투자회수(exit)와 공공부문(정부)의 정책 목표인 활발한 창업생태계 조성이 효과적으로 달성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자금(예산) 투입 뿐 아니라, 창업행동 (entrepreneurial behavior), 창업동기 (entrepreneurial motivation), 창업의도 (entrepreneurial intention), 창업가정신 (entrepreneurship)¹⁾과 같은 개인 단위의 요소들 또한 세심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이는 창업을 독립된 사업체나 하나의 조직을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정의할 경우(Gartner et al., 1992; Learned, 1992), 창업

가의 개인적 태도나 역량이 실제로 혁신(창업)을 유도하는 되는 출발점임과 동시에 가장 핵심적인 작동 기제이기 때문이다(Kanter, 1988; Scott & Bruce, 1994).

한편, 본 연구의 관심변수인 창업의도 및 창업가정신은 개인 수준의 유사개념인 창업행동 및 창업동기와의 비교 검토를 통해 그 의미가 더욱 구체화 될 수 있다.

첫째, 창업행동이란 창업자의 특성 중 행동으로 나타나는 속성을 의미한다(박재환·김재호, 2014). 예컨대, Reynolds(2007)는 창업활동을 사업 유무, 생산, 실행, 개인적 기회 및 준비, 생산물에 대한 집중 등으로 파악하였다. Collins et al.(2004)는 창업활동을 창업동기에 의한 결과물로 정의하였다. 이처럼 창업행동은 창업 과정상의 종착지이자, 창업가의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활동 (activity)을 의미한다.

둘째, Shane et al.(2003)에 따르면, 창업동기는 거시환경적 요인(예: 정치적요인, 시장요인, 자원요인)과 구분되는 개념으로써, 창업가가 되고자 하는 개인적인 의지 (willingness)를 뜻한다. 개인적인 의지에는 성취욕구, 위험감수성향, 인내력, 통제 의 위치, 자기효능감, 목표설정성향, 독립성, 진취성, 열정 등이 포함된다. 이와 유사하게, 윤방섭(2004)은 창업동기를 창업가의 개인적인 특질 (trait)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Carsrud &

* 주저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과정, joonbeomlee@gmail.com

· 투고일: 2019-01-09 · 수정일: 2019-02-16 · 게재확정일: 2019-02-26

1) Wortman Jr(1987)는 창업가정신을 ① 개인 수준의 창업가정신 (individual entrepreneurship)과 ② 기업 수준의 창업가정신 (corporate entrepreneurship; intrapreneurship)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Wu et al.(2007)는 기업 수준의 창업가정신 (혹은 기업 수준에서 창업가정신을 구성하는 요인들)도 개인 수준의 창업가정신에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Brännback(2011)은 창업동기를 창업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 광범위하게 파악하여, 창업가의 개인적 특질을 비롯하여 창업의도, 창업행동에 대한 인지적 특질까지 포함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윤남수(2012; 2013)는 창업동기의 범주를 개인적 특질(성취욕구, 자존의 욕구)에서 사회적 인식, 인적네트워크, 창업교육으로까지 확장하였다. 즉, 창업동기는 협의의 관점에서 창업자의 개인적 특질을 뜻하지만, 광의의 관점에서는 창업의도 및 다양한 사회적 제도까지 포함한다. 결론적으로, 창업동기는 창업행동을 유발하는 제반 요인들을 가리킨다(Locke, 2000).

셋째, 창업의도는 창업에 대한 창업자의 마음상태, 즉 창업의지나 창업욕구를 의미한다는 점에서(Bird, 1988),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창업동기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창업의도가 창업의지력(김홍, 2012)이나 창업 커리어를 선택하기 위한 계획된 행동(배병윤·이주현, 2015; Krueger et al., 2000)을 의미하는 경우에는 창업행동과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다.

다수의 실증연구들에서는 후자의 견해에 근거하여 창업의도의 개념을 파악하고 있으며, 때로는 창업의도가 직업선택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창업의사결정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 실증분석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변수 조작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창업의도는 창업가의 행동적 속성에 초점을 두고 직업선택과정 중 취업을 대신하는 창업 의사결정으로 개념화되고 있지만, '취업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써의 창업'이 아니라 '창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로써 단순히 조작화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에서 주로 일차원으로 측정되었던 창업의도를 취업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으로 조작화하여 이차원으로 확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창업가정신은 연구자들마다 상이한 조작적 정의를 보이는 바, 이는 창업가정신의 개념이 ① 창업가의 개인적 특질, ② 창업가의 행동, ③ 창업과정을 모두 포괄하는 매우 광범위하고 총체적인 성격을 지니기 때문이다(Kaufmann & Dant, 1999). 본 연구에서는 창업가정신의 하위개념 중 개인적 특질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창업행동(또는 창업의도)과 그에 대한 결정요인인 창업동기(또는 창업가정신)를 분석하기 위한 가장 이상적인 연구모형은 개인의 '행동'을 꾸준히 추적 관찰한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다. 예컨대, 모형의 종속변수를 '창업기업 설립여부'로 설정하고, 설명변수를 '위험감수적인 행동여부, 목표지향적인 행동여부, 독립적인 행동여부 등'과 같은 행동변수로 조작화 한다면,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높일 수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행동 데이터는 관측과 수집이 어렵다는 한계로 인해 설문데이터가 대안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제약 요인들 때문에, 행동 데이터를 수집하는 대신 설문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하지만 직업선택이라는 '구체적인 행동'에 대한 선호를 묻는 문항들이 활용되었다는 점에서, 창업에 대한 선호를 단선적으로 묻는 기존 연구

들과 구별된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유봉호(2015)의 연구에서는 이미 창업프로세스를 밟고 있는 창업보육기관 입주기업의 창업자들을 연구표본으로 설정하였고, 그 결과 종속변수인 창업의지에 창업자의 행동지향적 속성이 반영되었다.

또 다른 차별점은 시계열 정보를 활용하여 논의 및 분석의 기회를 확장하였다는 점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창업가정신과 창업의도에 관한 대다수의 문헌들은 주로 단년도 서베이(survey) 자료만을 사용하고 있으나, 본 연구는 다기간에 걸친 서베이패널(survey panel) 자료를 사용하여 연구의 내적타당성(internal validity)을 높이고 있다. 특히 고정효과 패널모형의 경우, 개인의 이질성(individual-specific heterogeneity)을 모형에 반영하고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개인의 눈에 보이지 않는 특성들(unobservable time-invariant)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누락변수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내생성의 위협을 좀 더 완화할 수 있다(Wooldridge, 2013). 그러나 변수별로 다양한 설문문항을 활용하지 못하고 단일문항을 사용하여 구성타당성(construct validity)에 대한 검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 점은 본 연구의 분명한 한계이다.(Shadish et al., 2002)

상술한 조작적 정의와 방법론적 차별점 이외에, 창업가정신의 범주를 이타적 성향으로까지 확장한 점은 실증적, 개념적, 구성적 관점에서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어지는 2장에서는 창업가정신, 창업의도, 창업가정신과 창업의도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고 관련된 가설을 설정하였다. 3장에서는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 분석모형 그리고 변수의 측정기준을 제시하였다. 4장에서는 실증분석결과, 5장에서는 정책적 시사점과 연구의 한계를 논의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및 가설설정

2.1 창업의도

Bird(1988)는 창업을 매니지먼트(management)에 속하는 하나의 하위 항목이 아닌 별도의 독립적인 연구 분야로 구별하면서, 창업의도(entrepreneurial intention)를 창업경험과 창업행동을 향한 창업가의 마음 상태로 정의하였다. 즉, 창업의도는 조직에 고용되는 형태가 아니라 스스로 고용되는 형태(self-employed)를 뜻하는 창업을 향한 의지와 욕구를 열망하는 것으로 개념화될 수 있다(Crant, 1996; Krueger et al., 2000).

창업의도에 관한 기초적인 이론 모형은 Shapero & Sokol(1982)의 창업 이벤트 모형(Shapero's model of the Entrepreneurial Event: SEE)과 Ajzen(1991)의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에 의해 정립되었다. 이후, Krueger(1993)와 Davidsson(1995)은 창업의지모형을 확장하였으며, Autio et al.(2001)은 기존 연구모형들을 대학에 맞도록 변용하였다(김재형, 2018; 이재석·이상명, 2015; Krueger et al., 2000)

Shapero의 창업 이벤트 모형(SEE)에 따르면, 구체적인 창업

의도는 ① 창업이 주변 사람들에게 의해 바람직하게 받아들여지는 정도를 의미하는 지각된 바람직성 (perceived desirability), ② 주변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창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가능성을 뜻하는 지각된 실현가능성 (feasibility), ③ 결정사항에 의거하여 행동하는 개인의 특질을 가리키는 행동성향 (propensity to act)으로 구성된다(이현숙·백민정, 2012; Shapero & Sokol, 1982).

Ajzen의 계획된 행동이론 (TPB)은 인간의 행동을 예측하고 설명하기 위한 이론으로써, 인간의 행동을 계획된 것으로 본다. 즉, 의지는 행동을 유도하기 때문에, 의지는 계획된 행동의 실천 여부를 가장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행동에 대한 의지는 주관적 태도와 기준, 통제 등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특정인의 행동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다(김재형, 2018; 이재석·이상명, 2015; Ajzen, 1991; Autio et al., 2001).

Boyd & Vozikis(1994)는 Bird가 제시한 개념을 바탕으로 창업의도에 있어 개인적인 확신 (conviction)을 뜻하는 자기효능감(self-efficacy) 측면의 속성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창업의도를 다룬 이론적인 모형 연구들은 주로 창업의지 및 창업욕구와 관련된 '의지적' 속성을 부각하고 있다.

한편, Davidsson(1995)는 Shapero의 창업의지모델에 '행동적, 실행적' 속성을 추가함으로써, 창업의도를 새로운 기업을 세우기 위한 창업가의 의사결정으로 정의하였다. 이는 창업의도의 개념 구성에서 창업자의 '의지적' 속성과 '행동적, 실행적' 속성을 함께 고려하는 견해이다. 몇몇 실증연구들에서 이러한 흐름이 확인되고 있다. 예컨대, "창업의지력"과 "창업실행력"을 조작적 정의로 하여 창업의도를 측정한 연구(김홍, 2012)와 "나는 창업할 생각을 매우 진지하게 가지고 있다, 나는 창업기업가가 되기 위해 무언가를 할 준비가 되어있다, 나는 10년 이내에 창업을 할 것이다"의 설문 문항을 이용한 연구(진주형·박병진, 2014)들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창업의도의 구성요소에서 '의지적' 속성에 비해 '행동적, 실행적' 속성에 초점을 맞춘 실증연구들도 많다. 예컨대, 시점기준(학부재학중/졸업이후/취업이후)별 창업가능성(3년내/5년내/5~10년내/10년이상 후 창업)변수를 활용한 연구들을 들 수 있다(Krueger & Brazeal, 1994; Linan et al., 2011, 이재석·이상명, 2015). 또한 '행동적, 실행적' 속성에 매우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견해들에 따르면(배병윤·이주현, 2015; Krueger et al., 2000), 창업의도란 취업보다 창업에 호의적인 상태를 의미하며 창업 행동을 수행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또는 직업선택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창업 커리어를 선택하기 위한 계획된 행동으로 지칭된다. 결국, 창업의도는 '행동적, 실행적' 속성이 강할수록 창업행동과 밀접하게 연계된다.

창업의도를 정의함에 있어 창업자의 '행동적, 실행적' 속성과 진로선택과정 상의 창업 의사결정을 강조한 실증연구들이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창업을 취업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조작화하거나 취업에 대한 기회비용 측면에서 변수를 구성한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개념 정의에 부합하는 적절한 조작화는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위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취업자가 어떠한 형태로든 경제활동에 종사하려는 의도가 있다(의도적으로 미취업 상태에 놓이지 않으려 한다)는 가정하에, 취업과 창업을 상호배타적 (mutually exclusive)인 개념으로 구분하고 창업의도를 더미변수화 하였다.

2.2 창업가정신

창업가정신은 모호한 (vague) 개념이기 때문에(Naudé, 2010), 연구자들마다 개념적 범위에 대한 각기 다른 수준의 중요도를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유봉호, 2015). 그러나 Kaufmann & Dant(1999)에 따르면, 창업가정신은 창업가와 관련된 매우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개념으로써, ① 창업가의 개인적인 특질, ② 창업가의 행동, ③ 창업과정의 세 가지 범주로 구성된다.

첫째, 창업가의 개인적인 특질 (trait) 측면에서 창업가정신은 창조적 파괴에 공헌할 수 있는 자질(Schumpeter, 1942)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리더십, 동기 부여 및 위기 해결 능력, 불확한 상황을 기피하지 않는 성향 등으로 구성된다(Knight 1921; Leibenstein, 1968).

둘째, 창업가의 행동 (activity) 측면에서 창업가정신을 살펴보면, 창업가정신은 수익 중심의 사업을 시작, 유지 및 발전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활동을 의미하며(Cole, 1968), 기회를 인식하고 고객의 니즈를 채우거나 기존의 수익 활동을 좀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는 행동을 뜻하기도 한다(Kirzner, 1985).

셋째, 창업의 과정 (process) 측면에서 창업가정신을 살펴보면, 창업가정신은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내고(Gartner, 1985),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며(Low & MacMillan, 1988), 불확실하고 모호한 환경 속에서 새롭고 독특하며 가치 있는 자원의 조합을 통해 이익을 추출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Amit et al., 1993).

한편, 창업가정신은 개인(창업가) 뿐 아니라 조직(창업기업) 차원에서도 논의될 수 있다. 즉, 창업가정신은 ① 기업 수준의 창업가정신 (corporate entrepreneurship; intrapreneurship)과 ② 개인 수준의 창업가정신 (individual entrepreneurship)으로 구분된다(Wortman Jr, 1987). Lumpkin & Dess(1996)는 기업 수준의 창업가정신을 가리켜 창업정신 (entrepreneurial orientation)이라는 별도의 용어로 명명하기도 하였다.

예컨대, 기업 수준의 창업가정신은 ㉠ 시장 및 기술에 대한 혁신성 (product innovativeness), ㉡ 위험감수성 (risk-taking), ㉢ 진취성 (proactiveness)이라는 3가지 하위요소들로 구성되며 (Covin & Slevin, 1988; Miller, 1983; Slevin & Covin, 1990; Zahra, 1991), Lumpkin & Dess(1996)는 이상의 3가지 요소 이외에 ㉣ 자율성 (autonomy)과 ㉤ 경쟁적 적극성 (competitive aggressiveness) 개념을 추가하여 기업의 창업가정신을 총 5가지 하위개념으로 제시하였다.

개인과 조직 차원의 창업가정신은 비록 분석단위 상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구성항목들 사이에는 많은 유사성과 관련성이 있다. 따라서 기업 수준의 창업가정신(혹은 기업 수준에서 창업가정신을 구성하는 요인들)도 개인 수준의 창업가정신에 적용될 수 있다(Wu et al., 2007).

다른 한편, 자원기반이론(resource based theory)에 근거하면, 창업가정신은 일반적으로 창업가의 창업 기회에 대한 독특한 인식, 자원을 획득하여 해당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동질적인 자원(homogeneous Input)을 이질적인 결과물(heterogeneous Output)로 승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Alvarez & Busenitz, 2001)

이처럼 창업가정신에 관한 개념 정의는 이론적 범주의 상이성, 분석의 수준의 다양성 등 때문에 연구자들 사이에 명확히 합의된 바가 없어, 어느 부분에 초점을 두는지에 따라 개념 구성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특성이 개인 수준의 창업가정신과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점은 분명하다(Shaver & Scott, 1992).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창업가정신의 다양한 개념적 범주들 가운데 Kaufmann & Dant(1999)이 제시한 첫 번째 항목인 창업가의 개인적인 특질로 창업가정신을 정의하였다.

2.3 창업가정신과 창업의도

2.3.1 개인적 성향과 창업의도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결정요인들은 크게 ① 개인적 특질(personality characteristics)에 관한 내부적 요인과 ② 맥락적 환경(contextual factors)에 관한 외부적 요인으로 이분화된다.

자신감(self-confidence), 위험감수성(risk-taking ability), 성취욕구(need to achievement), 통제의 위치(locus of control) 등이 창업의도와 연관된 대표적인 개인 특질이다(Bird, 1988; Turker & Sommez, 2009). 외부 환경적 요인은 개인을 둘러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인구통계학적, 기술적 요인들을 모두 담고 있는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다. 예컨대, 오해동의(2016), Gartner(1985), Lüthje & Franke(2003), Morris & Lewis(1995), Van de Ven et al.(1984)의 연구들에서 상황적 요인들이 강조되고 있다.

그런데 거시환경적 요인(예: 정치적요인, 시장요인, 자원요인)은 개인이 놓인 상황에 대한 변수로써, 창업자들이 매우 이질적인 상황에 놓여있지 않은 이상 유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Shane et al.(2003)은 상황적 요인이 유사하거나 해당 변수를 통제할 경우,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개인적 특질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창업의도와와의 관련성 측면에서 창업가의 개인적인 특질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개인의 특질 관점에서 창업가정신과 창업의도 사이의 개념적 연관성을 실증분석한 심리학 연구들(Macko & Tyszka,

2009; Zhao et al., 2005; Zhao & Seibert, 2006), 창업가정신의 개념적 틀을 제시한 연구들(Cunningham & Lischeron, 1991; Ma & Tan, 2006; McGee et al., 2009)을 비롯하여, 창업가정신과 창업의도의 연관성을 실증분석한 국내외문헌들이 다수 존재한다.

이러한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창업가의 성향과 창업의도의 관련성을 찾는 데 집중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주목받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하여 ‘사회적 창업가정신’에 대한 실증적인 논의를 추가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존재한다. 즉, 개인적 성향에 대한 창업가정신을 실증분석한 연구들은 많지만, 이타적 성향에 대한 창업가정신을 별도로 구분한 후 창업의도와와의 관련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국내문헌들은 많지 않다. 본 절에서는 개인적 성향에 대한 기존연구와 연구가설을 제시하였고, 이어지는 절에서 이타적 성향에 관한 부분을 별도로 서술하였다.

첫째, 창업가의 개인적 특질을 다룬 연구들은 성취욕구, 통제 의 위치, 위험감수성향을 근간으로 하여 발전해오고 있다. 성취욕구(need for achievement)란 문제해결에 대한 높은 책임감, 어려운 목표에 대한 도전정신,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피드백 등을 의미한다. 창업가들의 높은 성취욕구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많은 실증분석 결과들을 통해 비교적 일관되게 검증되고 있다(Hines, 1973; Lachman, 1980; Markman et al., 2005; Nandy, 1978; Pandey & Tewary, 1979). 또한, 창업의도와 성취추구 사이의 관계성도 다수의 실증연구들에서 확인되고 있다(배병윤·이주현, 2015; 이지우, 2000; Sexton & Bowman, 1985; Uddin & Bose, 2012).

통제의 위치(Locus of Control)란 자신의 행동에 대한 통제력의 위치(내부/외부)를 의미한다. 창업가들은 강인한 정신력으로 높은 위험성을 가진 다양한 과업들을 처리해야 하므로 내적통제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Ayodele, 2013; Pandey & Tewary, 1979).

위험감수성향(risk-taking propensity)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가까이 위험을 감당하고 기회를 포착하려는 개인적인 특질을 의미하며(최용석 외, 2016; Sitkin & Pablo, 1992), 많은 학자들이 위험감수성향을 창업가의 차별적인 특성으로 간주하고 있다(신정신·이재은, 2018; Hmieleski & Corbett, 2006; Zhang, et al., 2015). 또한 Carland et al.(1995)에 따르면, 창업가들의 위험감수성향은 소기업 소유주나 관리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Littunen(2000)에 따르면, 성취욕구와 통제의 위치는 창업가와 비창업가를 구별짓는 주요한 심리학적 특성(Aldrich & Zimmer, 1986; Chell et al., 1991)으로써, 창업가정신의 하위요소에 해당한다. 창업의도와 성취추구 및 통제성향의 관계를 분석한 대표적인 문헌으로 이지우(2000)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동 연구에서는 창업가의 특성을 성취욕구, 내부통제부위 및 자기권능감으로 측정하고, 해당 요인과 창업의지 사이의

2) 창업가의 이타적 성향과 연관된 창업가정신은 “사회적 창업가정신(social entrepreneurship)”이라는 별도의 개념으로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Dees, 1998).

관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성취욕구가 높을수록, 내부통제 성향이 높을수록, 그리고 자기권능감이 높을수록 창업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성취욕구 및 내부통제성향과 창업의도의 관계성이 검증되었다. 또한 성취추구, 위협감수성, 자기권능감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정용화·하규수(2012)의 연구에서는 자기권능감을 제외한 성취추구와 위협감수성에서 창업의도에 대한 유의한 양(+)의 영향이 발견되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에 의거하여, 가설 1-1, 가설 1-2, 가설 1-3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 1-1: 성취욕구를 중요시하는 특성이 강할수록, 창업의도가 높을 것이다.

가설 1-2: 내부통제를 중요시하는 특성이 강할수록, 창업의도가 높을 것이다.

가설 1-3: 위협감수성을 중요시하는 특성이 강할수록, 창업의도가 높을 것이다.

둘째, 창업가정신에 관한 연구는 창업가의 혁신성, 적극성, 진취성 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점차 확장되고 있다. Miller(1983)는 창업가정신의 개념을 ‘다소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혁신적인 제품을 시장에 도입하고 경쟁자보다 진취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자세’로 정의하였다. 즉, 기업가정신을 3가지 구성개념(위험감수성, 혁신성, 진취성)으로 파악하였다(Covin & Slevin, 1988). 한편, Lumpkin & Dess(1996)는 경쟁적 적극성의 개념을 제시하였으나, 해당 개념을 진취성과 같은 개념으로 보는 연구들이 많다(배병윤·이주현, 2015).

창업가정신을 위험감수성, 혁신성, 진취성으로 구성된 김정근·양동우(2016)의 연구에서는 상기 3개 요인이 전부 창업의도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혁신성과 진취성이 창업의도의 영향요인이 실증적으로 검증되었다. 이와 유사하게, 대학생을 대상으로 창업가정신(위험감수성, 혁신성, 진취성)과 창업의도의 관련성을 분석한 김재형(2018)의 연구에서도 해당 요인들 모두가 창업의도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향림·하규수(2012)의 연구에서는 위험감수성과 혁신성이 강한 사람의 창업의도가 높다는 점이 검증되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가설 1-4 와 가설 1-5를 설정하였다.

가설 1-4: 혁신성을 중요시하는 특성이 강할수록, 창업의도가 높을 것이다.

가설 1-5: 진취성을 중요시하는 특성이 강할수록, 창업의도가 높을 것이다.

셋째, 자율성은 창업동기를 자극하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유봉호, 2015; Lumpkin et al., 2009; Sexton & Bowman, 1986; Wang et al., 2006). 이에 따라 창업의도(창업행동)에 대한 영향요인으로써 자율성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유봉호, 2015; Lumpkin & Dess, 1996; Wu et al., 2007). 대표적으로, 유봉호(2015)의 연구에서는 창업가정신을 위험감수성, 진취성, 자율성으로 정의하였고, 이러한 창업가정신이 창업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창업동기는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결국, 이를 통해 자율성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경로를 확인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에 따라, 자율성에 관한 가설 1-6을 제시하였다.

가설 1-6: 자율성을 중요시하는 특성이 강할수록, 창업의도가 높을 것이다.

2.3.2 이타적 성향과 창업의도

앞서 설명하였던 성취욕구, 통제 의지, 위협감수성, 혁신성, 진취성, 자율성 이외에 이타심, 타인으로부터의 인정욕구, 타인에 대한 영향력 등과 같은 사회적 차원의 개인적 특성들도 창업가정신의 중요한 구성요소가 될 수 있다. 배귀희(2011)는 창업가정신의 일반적인 특성(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에 더하여 “사회적 목적 (social mission)”이라는 별도의 구성개념을 추가하여 ‘사회적 창업가정신 (social entrepreneurship)’을 정의하였다.

사회적목적이 포함된 창업가정신의 구성개념은 배귀희(2011)의 연구에서 그 당위성이 주장되었고, 사회적기업 설립을 위한 창업 교육훈련(또는 창업보육서비스)을 받은 경험이 있거나 참여 중인 예비사업자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영향을 분석한 선행연구가 존재한다(이은수·이준우, 2017; 조규호, 2013).

예컨대, 조규호(2013)의 연구에서는 개인적 특성(기업가적 특성과 사회적가치 기여의식)과 상황적특성(경제적 환경여건, 사업추진여건)을 구분하여 창업의도와 사회적 창업가정신의 관련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이은수·이준우(2017)의 연구에서는 조직구성원의 직무태도에 대해 사회적 창업가정신이 미치는 영향이 실증분석되었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에 한정되지 않고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의도와 창업가정신의 관계를 검증할 필요성도 존재한다. 즉, 사회적가치 기여의식을 바탕으로 한 이타적 성향이 일반적인 창업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관한 분석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분석된 결과는 사회적 창업가정신의 개념을 정의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사한 선행연구들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라, 일반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사회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타적 성향이 창업의도를 높일 것이라는 가설 2를 설정하였다.

가설 2: 이타적 성향을 중요시하는 특성이 강할수록, 창업의도가 높을 것이다.

III. 연구모형

3.1 분석데이터

창업가정신과 창업의도의 관계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대한민국 청년들의 시계열적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 패널조사인 청년패널 (Youth Panel) 조사를 활용하였다. 동 패널조사는 “청년층의 학교생활, 사회·경제활동, 가계배경 등을 반영하는 기초 자료를 수집하여 청년실업의 해소를 위한 고용정책의 수립 및 관련 연구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이중표본추출 (Double Sampling) 방식을 통해 만15~29세 청년을 표본으로 구성하여 2007년 (원표본: 10,206명)부터 매년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³⁾

본 연구는 이용 가능한 10년치 자료 (2007년부터 2016년) 중 창업의도에 아무런 변이가 존재하지 않는 (모든 응답자가 창업의도가 없다고 응답한) 2007년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9년치의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또한 해당 9년치 표본에서 속하더라도, 창업의도 (종속변수)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결측치들은 제외되었다.

3.2 분석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창업가정신과 창업의도의 연관성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횡단면 데이터 (cross-sectional data)에서는 종속변수가 이분변수 (binary variable)일 경우, 프로빗 (probit) 또는 로짓 (logit) 모형이 활용된다. 또한 이분변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패널데이터에서도 패널 개체의 고유한 특성을 모형에 반영하면서 로짓모형과 프로빗모형을 사용할 수 있다(민인식·최필선, 2010).

패널로짓모형은 패널프로빗모형과 달리, 고정효과를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패널프로빗모형에서는 고정효과 분석이 불가능한 반면 패널로짓모형에서는 조건부 로짓분석을 통한 고정효과 추정이 가능하다.

한편, 고정효과 적용시 종속변수 (창업의도)의 시간에 따른 변이가 충분히 존재하는 경우에만 계수값 추정이 가능하므로, 시간에 따른 변화가 없거나 매우 적은 종속변수를 가진 관측치들은 분석에서 제외되며, 이 경우에는 표본의 크기가 상당히 축소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패널로짓모형을 중심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모형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하의 수식과 같고, 이를 그림으로 도식화하면 이하의 <그림 1>과 같다.

$$Y_{it} = \ln \left[\frac{P_{it}}{1 - P_{it}} \right] = \alpha + \sum_p \beta_p X_{p,it} + \sum_q \gamma_q Z_{q,it} + \alpha_i + \delta_i + \epsilon_{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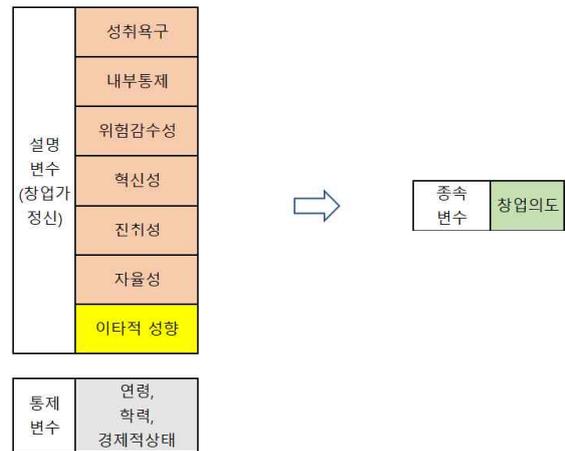
$$\sum_p \beta_p X_{p,it} = \beta_1 \text{성취욕}_{it} + \beta_2 \text{내부통제}_{it} + \beta_3 \text{위험감수성}_{it} + \beta_4 \text{혁신성}_{it} + \beta_5 \text{진취성}_{it} + \beta_6 \text{자율성}_{it} + \beta_7 \text{이타적성향}_{it}$$

$$\sum_q \gamma_q Z_{q,it} = \gamma_1 \text{연령}_{it} + \gamma_2 \text{학력}_{it} + \gamma_3 \text{경제적상태}_{it}$$

Y_{it} : 종속변수(창업의도), X_{it} : 설명변수(창업가정신)

Z_{it} : 통제변수(연령, 학력, 경제적상태)

α_i : 개인특성 절편항, δ_i : 연도특성 절편항, ϵ_{it} : 잔차항



<그림 1> 연구모형

한편, 설명변수와 관계가 있으며 종속변수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내생성을 야기하는 변수에 대한 적절한 고려가 필요하다. 그러나 패널로짓 고정효과모형의 경우, 시간불변 (time-invariant)적 속성이 강한 변수들(예: 성별, 최종학력, 거주지 등)은 시간에 따른 변이가 전혀 또는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모형에 투입할 실익이 크지 않아 별도의 통제변수로 설정하지 않았다. 대신, 연령, 학력, 경제적상태는 시간에 따른 변이가 충분히 존재하고 창업의도에도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통제변수로 변수화하였다.

3.3 변수의 측정

구체적인 변수의 측정기준은 <표 1>과 같다. 종속변수인 창업의도를 측정하기 위해, “귀하가 일하고 싶은 기업유형은 무엇입니까?” 라는 설문지 이용되었다. 응답으로는 총 6개 범주 (1: 대기업, 2: 공공기관, 3: 외국계기업, 4: 일반중소기업, 5: 전문중소기업, 6: 창업)가 가능하지만, 실증분석을 위해서는 1번에서 5번까지의 범주를 0으로 그리고 6번 범주를 1로 코딩하여 창업의도에 대한 더미변수를 생성하였다.

설명변수인 창업가정신의 세부항목에 대한 측정을 위해서는 “귀하께서는 직업선택시 각 항목 (질문)들이 얼마나 중요하다

3)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 참조 (검색일: 2018년 12월 19일)

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이용되었다. 평가척도로는 리커트 (Liert) 5점 척도(1: 전혀 중요치 않다, 2: 중요하지 않다,

3: 보통이다, 4: 중요하다, 5: 매우 중요하다)가 활용되었다.

<표 1> 변수 유형별 설문내용 및 측정기준

변수		활용된 설문내용	측정기준	선행연구에서 활용된 변수정의
종속 변수	창업 의도	귀하가 일하고 싶은 기업유형은 무엇입니까?	기업유형별 명목변수 (1: 대기업, 2: 공공기관, 3: 외국계기업, 4: 일반중소기업, 5: 전문중소기업, 6: 창업)를 창업에 대한 더미변수(창업=1, 기타=0)로 변환	직업선택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창업 커리어를 선택하기 위해 계획된 행동 (배병윤·이주현, 2015; Krueger et al., 2000)
	연령	출생연도	(단위: 세)	인구통계학적 변수
통제 변수	학력	현재 재학 및 휴학 중인 학교는?	중·고등학생=1, 대학생=2, 대학원생=3, 기타(소속된 학교 없음)=4	
	경제적 상태	부모, 형제를 포함하여 가족으로부터 매달 평균 고정적으로 얼마나 많은 생활비(용돈)를 지원받고 있습니까?	가족으로부터 매달 고정적으로 받는 평균액 (단위: 만원)	가족의 경제적 상황 (Nair & Pandey, 2006)
설명 변수	성취 욕구	[성취] (직업선택 시 성취의 중요성) 자신이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달성할 수 있다.	1: 전혀 중요치 않다, 2: 중요하지 않다, 3: 보통이다, 4: 중요하다, 5: 매우 중요하다	문제해결에 대한 높은 책임감과 어려운 목표에 대한 도전정신 (이지우, 2000; Markman et al., 2005)
	내부 통제	[개인지향] (직업선택 시 개인지향의 중요성) 여러사람들과 어울려 일하기 보다는 혼자 일할 수 있다.	1: 전혀 중요치 않다, 2: 중요하지 않다, 3: 보통이다, 4: 중요하다, 5: 매우 중요하다	나 자신에 대한 노력, 내가 세운 계획에 대한 확신 (이지우, 2000; Ayodele, 2013)
	위험 감수성	[직업안정] (직업선택 시 직업안정의 중요성) 고용이 안정되어 있어서 정년까지 일할 수 있다.	<역코딩> 5: 전혀 중요치 않다, 4: 중요하지 않다, 3: 보통이다, 2: 중요하다, 1: 매우 중요하다	불확실성에 대한 강한 인내력, 안정보다 성장을 지향, 실패를 통한 과감한 도전 (신정신·이재은, 2018; Hmieleski & Corbett, 2006; Zhang, et al., 2015)
	혁신성	[다양성] (직업선택 시 다양성의 중요성) 업무가 정형화되지 않고 변화가 많다.	1: 전혀 중요치 않다, 2: 중요하지 않다, 3: 보통이다, 4: 중요하다, 5: 매우 중요하다	새롭고 독특한 방법을 통해 변화를 추구 하는 성향 (김정곤·양동우, 2016; 김재형, 2018; Miller, 1983)
	진취성	[여유] (직업선택 시 여유의 중요성) 심신의 여유를 가질 수 있다.	<역코딩> 5: 전혀 중요치 않다, 4: 중요하지 않다, 3: 보통이다, 2: 중요하다, 1: 매우 중요하다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일을 이룩하려는 경향 (김재형, 2018; 유봉호, 2015; Lumpkin & Dess, 1996)
	자율성	[자율] (직업선택 시 자율성의 중요성) 자율적으로 업무를 해나갈 수 있다.	1: 전혀 중요치 않다, 2: 중요하지 않다, 3: 보통이다, 4: 중요하다, 5: 매우 중요하다	타인의 지시를 기다리기 보다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하는 것을 선호하며 타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의사결정 하는 성향 (유봉호, 2015; Engel, 1970; Spreitzer, 1995)
	이타적 성향	[이타] (직업선택 시 이타심의 중요성) 남을 위해 봉사할 수 있다.	1: 전혀 중요치 않다, 2: 중요하지 않다, 3: 보통이다, 4: 중요하다, 5: 매우 중요하다	사회적 가치와 기여의식 (조규호, 2013; Yunus et al., 2010)

단, 여기서 성취욕구, 내부통제, 혁신성, 자율성, 이타적 성향 개념과 설문항목 사이에는 직접적인 선형 관계가 존재하는 반면, 위험감수성 및 진취성과 설문항목 사이에는 역의 선형 관계가 나타난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반영하기 위하여, 해당 설문 문항에 대한 역코딩 변환을 실시하여, 다른 설문들과의 균형을 유지하였다.

통제변수와 관련해서는 연령, 학력, 경제적상태가 설정되었다. 학력은 “현재 학교에 재학중인가?” 와 “현재 재학 및 휴학중인 학교는?” 설문을 이용하여 중·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기타(소속된 학교 없음) 더미를 생성하였고, 경제적상태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가족으로부터 매월 평균적으로 받는 경제적 지원액” 문항을 이용하였다.4)

IV. 연구결과

4.1 기초통계량 분석

청년패널조사는 2007년부터 매년 10,206명의 응답자를 원표본으로 하여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관측치마다 창업의도 문항에 변이 (variation)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2007년 전체 표본을 제외하였고, 이후 연도에서는 해당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결측치들을 제외하였기 때문에, 최종적인 표본에 속한 관측치들은 자연적인 탈락 (attrition) 이외에도 연도별로 차이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최종 표본을 산정한 결과, 분석에 사용된 모든

4) 앞서 검토하였듯, 창업의도에 대한 결정요인들은 크게 개인특질과 외부 환경요인으로 이분화된다. 응답자의 경제적 상태는 대표적인 외부 환경요인이지만, 창업에 대한 사회문화적 인식, 정부의 창업지원 관심도 등과 같은 공통적인 외부환경적 요인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해당 요인들은 고정효과 모형에서 시간고정효과를 통해 제거되거나, 확률효과 모형에서 확률적으로 고려되어 통제될 수 있다.

관측치의 개수는 총 8,889개, 응답자 수는 3,898명, 그리고 응답자 1인당 추적할 수 있는 평균적인 연도별 관측치 개수는 약 2.3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연도별로 정리하면 <표 2>와 같으며, 종속변수인 창업의도 더미(창업 또는 비창업)에 관한 정보 역시 연도에 따라 분류될 수 있다.

<표 2> 관측치 개수 및 종속변수의 연도별분포

(단위: 개)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총합
관측치	478	406	380	370	2205	1848	1485	1052	665	8889
종속변수	비창업	461	381	367	350	2084	1755	1410	993	8433
	창업	17	25	13	20	121	93	75	59	456

연속형 변수 형태로 되어있는 통제변수와 설명변수에 관한 기초통계량은 이하의 <표 3>과 같다. 응답자의 평균적인 나이는 23.422세이며, 가족으로부터 한 달에 평균적으로 받는 지원금액은 약 27만원 이었다. 그리고 위험감수성은 평균적으로 약 1.99점, 진취성은 2.09점, 내부통제는 약 3.32점, 혁신성은 3.39점, 이타적 성향은 약 3.63점, 자율성은 3.88점, 그리고 성취욕구는 4.03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연속형 변수에 대한 기초통계량 (n=8,889)

변수 구분	변수명	단위	평균값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통제 변수	연령	세	23.422	2.6455	16	38
	경제적상태	만원	26.533	25.073	0	340
설명 변수	성취욕구	점	4.0359	.65718	1	5
	내부통제		3.3159	.89059	1	5
	위험감수성		1.9959	.75641	1	5
	혁신성		3.3856	.83463	1	5
	진취성		2.0930	.6764	1	5
	자율성		3.8758	.67347	1	5
	이타적 성향		3.6313	.7606	1	5

한편, 명목형 통제변수인 학력의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고등학생은 총 68개의 관측치 (0.77%), 대학생은 총 8,085개의 관측치 (90.97%), 대학원생은 총 732개의 관측치 (8.24%), 기타 (소속된 학교 없음)는 총 4개의 관측치 (0.03%)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4.2 상관관계 분석

분석에 투입된 주요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정리하면 이하의

<표 4>와 같다. 특히, 설명변수들의 각 계수값에 관한 정확한 통계적 유의미성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설명변수들간의 상호 관련성이 적거나 약하여 다중공선성의 우려가 없어야 한다.

<표 4> 상관관계 분석결과

변수명	1	2	3	4	5	6	7	8
1 성취욕구	1.00							
2 내부통제	0.1655*** (0.0000)	1.00						
3 위험감수성	-0.2222*** (0.0000)	-0.1032*** (0.0000)	1.00					
4 혁신성	0.1524*** (0.0000)	0.0306*** (0.0000)	-0.1322*** (0.0000)	1.00				
5 진취성	-0.2259*** (0.0000)	-0.1632*** (0.0000)	0.3723*** (0.0000)	-0.1633*** (0.0000)	1.00			
6 자율성	0.3773*** (0.0000)	0.1874*** (0.0000)	-0.2532*** (0.0000)	0.2136*** (0.0000)	-0.354*** (0.0000)	1.00		
7 이타적 성향	0.3767*** (0.0000)	0.2147*** (0.0000)	-0.173*** (0.0000)	0.2150*** (0.0000)	-0.1655*** (0.0000)	0.2767*** (0.0000)	1.00	
8 경제적 상태	0.0337** (0.0015)	0.0352*** (0.0000)	-0.0165 (0.0810)	0.0731*** (0.0000)	-0.0212 (0.0460)	0.0330*** (0.0007)	0.0533*** (0.0000)	1.00

1)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를 의미한다.
2) *** p<0.01, ** p<0.05

본 연구의 상관관계 분석을 토대로 할 때, 상대적으로 상관성이 높은 설명변수로는 성취욕구와 자율성, 성취욕구와 이타적 성향 그리고 위험감수성과 진취성, 진취성과 자율성을 들 수 있으나, 해당 계수값들은 0.4보다 작은 수준이어서 다중공선성의 우려가 적었다.5)

또한 설명변수 간의 선형관계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분산팽창인수 (VIF) 분석을 시행하였으나, 설명변수들의 수치 범위가 1.12~1.38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가 크게 우려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서도 관심 요인을 제외한 기타의 요인을 통제할 상태에서 두 변수 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회귀분석과 같은 추가적인 방법을 통해 좀 더 정확한 관계성을 규명해야 한다.

4.3 연구가설의 검증

<표 5>는 합동회귀모형, 패널로짓 고정효과모형, 패널로짓 확률효과모형에 대한 회귀분석결과를 나타낸 표이다. 합동회

5) 채서일·김주영(2016)에 따르면, 상관관계 계수값의 절대값이 0.6을 넘는 경우에 한해, 다중공선성의 우려를 의심할 수 있다.

귀모형은 비록 종속변수가 이진변수이고 주어진 데이터가 개체 및 연도 정보를 모두 포함하는 패널구조를 가지지만, 일반적인 회귀분석과 동일한 추정방식을 사용하는 모형이다. 그러나 합동회귀모형을 통해 도출된 계수값은 종속변수의 속성과 데이터의 패널구조 (특히 자기상관성)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신뢰성이 높은 추정치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패널로짓 고정효과모형은 개체특성 (또는 연도특성) 절편항을 고정된 것으로 가정하고 로짓분석을 실행한 추정 모형이

며, 패널로짓 확률효과모형은 개체특성 (또는 연도특성) 절편항을 고정된 수치가 아닌 확률변수로 간주한 상태에서 로짓 분석을 사용한 추정 모형이다. 두 모형의 선택에 있어서는 하우스만 검정 (Hausman Test) 결과를 참조할 수 있다. 하우스만 검정의 귀무가설은 '개체특성 (α_i)과 설명변수 (X_{it})간의 상관관계가 0' 임을 의미하며, 해당 귀무가설이 기각될 경우에는 고정효과 모형을 사용해도 무리가 없다(Wooldridge, 2013).

<표 5> 회귀모형 분석결과

	합동회귀모형 (Model 1)	패널로짓 고정효과모형 (Model 2)	패널로짓 확률효과모형 (Model 3)
성취욕구	0.0154*** (0.00408)	0.271* (0.153)	0.351*** (0.120)
내부통제	0.00871*** (0.00283)	0.151 (0.107)	0.235*** (0.0803)
위험감수성	0.0239*** (0.00338)	0.393*** (0.128)	0.536*** (0.0917)
혁신성	0.00173 (0.00301)	-0.145 (0.110)	-0.00295 (0.0830)
진취성	-0.00593 (0.00391)	-0.172 (0.141)	-0.138 (0.109)
자율성	0.0216*** (0.00398)	0.436*** (0.152)	0.596*** (0.118)
이타적 성향	-0.00886*** (0.00341)	-0.248** (0.124)	-0.225** (0.0942)
경제적 상태	-0.000482*** (9.34e-05)	-0.00503 (0.00462)	-0.0129*** (0.00321)
관측치수	8,858	793	8,858
개체수	-	242	3,882
R-squared	0.024		
개인더미	NO	YES	YES
연도더미	YES	YES	YES

1) *** $p < 0.01$, ** $p < 0.05$, * $p < 0.1$
 2)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를 의미한다.
 3) 원표본에는 8,889개의 관측치(3,898명의 응답자)가 존재하지만, 모든 설명변수의 값이 누락된 41개의 관측치(16명의 응답자)는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다.
 4) 패널로짓 고정효과 모형에서는 시간에 따라 종속변수의 변이가 없는 다수의 개체가 탈락함으로써 대규모의 관측치가 결측되었다.
 5) 3개 모형에 연령, 학력더미, 연도더미가 모두 포함되었으나, 변수의 누락, 통계적 유의미성의 부족, 일관된 경향성의 부재 등으로 인해 관련된 결과값들을 별도로 보고하지 않았다. 즉, 상기 표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는 주요 변수들의 계수값만 보고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의 검정 결과값은 $\chi^2=15.34$ ($p=0.2235$)로 도출되어, 상기 귀무가설이 기각될 수 없어 고정효과 모형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결론적으로, 패널로짓 확률효과모형이 상대적으로 가장 바람직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패널로짓 확률효과모형을 통해 도출된 계수값을 중심으로 가설검증을 시도하였으나, 해당 결과들이 합동회귀모형 및 패널로짓 고정효과모형과 어떠한 차이가 발생하는 지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였다. 실증분석 결과, 상기 세 모형 간에는 통계적인 유의미성에만 차이가 있을 뿐 대체적인 경향성은 매우 비슷하였다. 이처럼 계수 값들이 모형과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도출된다는 점은 본 연구결과의 강건성

(robustness)을 높이고 있다.

연구가설의 검증을 위해, 실증분석 결과를 구체적으로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가설 1-1, 1-2, 1-3의 검증결과, 성취욕구와 위험감수성은 모형에 관계없이 창업의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취욕구와 위험감수성향이 강할수록 창업의도가 높았다. 내부통제의 경우 모든 모형에서 통계적인 유의미성이 도출되지는 않았으나, 합동회귀모형과 패널로짓 확률효과 모형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통계적 유의미성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기업이 성향을 개념적으로 정의한 다양한 선행연구들(이지우, 2000; Ayodele, 2013; Hines, 1973;

Lachman, 1980; Littunen, 2000; Markman et al., 2005; Nandy, 1978; Pandey & Tewary, 1979)의 견해와 일치한다.

한편, 세 가지 특성들 사이의 상대적인 강도는 모든 모형에서 위험감수성, 성취욕구, 내부통제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구가설 1-4와 1-5는 지지되지 못하였다. 혁신성, 진취성 변수에서 도출된 계수값에는 통계적인 유의미성이 확보되지 않아, 귀무가설이 기각되지 않았다. 이는 혁신성을 창업가 정신의 하부 항목으로 파악한 김정곤·양동우(2016), 김재형(2018)의 연구결과와 상반되는 결과이지만, 혁신성이 창업 의사 결정과 무관하다고 주장한 선행연구들(유봉호, 2015; Kolvereid & Isaksen, 2006; Kropp et al., 2008)과는 일치되는 결과이다.

진취성의 경우 임아름 외(2014)의 연구와 일치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즉, 임아름 외(2014)는 창업가 정신을 위험감수성, 혁신성, 진취성으로 정의하고, 이들이 창업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위험감수성과 혁신성은 창업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만 진취성은 창업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혁신성과 진취성은 창업가 정신의 주요한 하위 요소인 성취욕구, 위험감수성, 내부통제에 더하여 부가적으로 추가된 요소이기 때문에(Lumpkin & Dess, 1996), 상대적인 중요성과 역할이 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셋째, 연구가설 1-6은 지지되었다. 즉, 자율성의 경우, 창업의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관계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자율성이 창업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주장(Sexton & Bowman, 1986) 및 자율성이 창업에 대해 긍정적인 정신을 야기한다는 주장(Kolvereid & Isaksen, 2006)과 일치되는 결과이다(유봉호, 2015).

마지막으로, 타인에 대한 이타심과 봉사정신을 뜻하는 이타적 성향은 창업의도와 부정적인 음(-)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서, 연구가설의 예측과 반대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정책적 제언

본 연구는 창업가 정신과 창업의도의 관련성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하여, 일차적으로는 창업가 정신과 창업의도의 개념을 명확히 하였다. 즉, 창업가 정신과 창업의도를 유사개념인 창업행동 및 창업동기와의 비교 검토를 통해 적절히 개념화하였다. 이를 통해, 창업가 정신을 창업가의 개인적인 특질로 구성하였고, 총 7개에 해당하는 하위개념을 제시하였다. 창업의도는 직업선택과정에서 창업자의 ‘행동적, 실행적’ 속성을 반영하는 변수로 정의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성취욕구가 강하고 내부통제성향이 높으며, 위험감수성이 높고, 자율적 성향이 많을수록 창업 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혁신성, 적극성은 통계적으로 창업의도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타적 성향은 창업의도와 음(-)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가 정신을 구성하는 동일한 하위 요소이더라도 연구들마

다 해당 변수에 대한 유의미성이 상이한 이유는 앞서 언급한 이론적 배경의 차이에 따른 결과이기도 하지만, 상이한 연구 표본의 사용이나 내생성의 문제 (예: 역의 인과관계, 누락변수의 존재)와 같은 통계적 요인에 기인할 가능성도 크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간의 변화에 따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내생성의 위험을 줄이고자 하였다. 또한 합동회귀모형, 패널로짓 고정효과모형, 패널로짓 확률효과모형을 통해 데이터의 결과값을 교차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연구결과의 강건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창업의도는 창업과 관계된 계획된 행동 (planned behavior)을 의미하기 때문에, 창업 행동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출된 창업가 정신과 창업의도의 관련성은 민간투자자와 정부의 정책결정자에게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스타트업 민간투자자 (예: 엔젤투자자)들은 투자수익률과 투자금액에 대한 회수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예비창업자의 창업의도를 예측할 유인을 가진다. 이 때, 사업모델이나 재무상태 이외에 예비창업자의 개인적인 특질에 관한 정보도 확보하게 된다면, 해당 정보를 통해 예비창업자의 창업의도를 좀 더 정확히 예측해 볼 수 있다.

공공부문의 창업정책 담당자들은 다양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 때,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일차적으로 창업의도가 높은 예비창업자를 선발할 유인이 있다. 따라서 창업정책 결정자들은 효과적인 정책 결정을 위해 ‘높은 창업의도를 가진 사람들의 특질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예비창업자들의 창업의도 (창업활동을 하려는 의지)를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Turker & Sonmez, 2009).

하지만 상술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닌다. 창업가 정신의 하위유형이 선행연구들에서 제시된 모든 개념들을 사용하여 구성되지 못한 점, 2차 자료인 청년패널 데이터를 사용함에 따라 정확하고 구체적인 변수 측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즉, 개념에 대한 직접적인 설문 문항을 사용하지 못한 점), 그리고 창업가 정신의 하위개념을 측정하는 데 있어 복수의 문항이 아니라 단일 문항이 사용된 점들이 대표적이다.

REFERENCE

- 김정곤·양동우(2016). 대학생의 기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4), 477-487.
- 김재형(2018). 대학생의 기업가정신과 창업의도와의 관계 연구: 창업실패두려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3(4), 73-82.
- 김홍(2012). 대학생의 창업요인과 창업의지와외의 관계 연구, *벤처창업연구*, 7(1), 263-271.
- 민인식·최필선(2010). STATA 고급 패널데이터분석, 서울: 한국 STATA 학회.

- 박재환·김재호(2014). 청년 예비창업가의 사회적창업가정신, 사회적 지지, 창업가적 프로세스 및 창업행동에 관한 연구, *경영교육연구*, 29(2), 258-278.
- 배귀희(2011). 사회적 기업가정신 개념 구성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5(2), 199-227.
- 배병윤·이주현(2015). 대학생의 조절초점성향이 기업가정신 및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10(6), 215-223.
- 신정신·이재은(2018). 대학교 창업동아리원의 기업가정신이 동아리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3(5), 41-54.
- 오해동·최지연·노진표(2016). 개인 특성 및 기업가정신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1(2), 35-48.
- 유봉호(2015). 성취욕구와 창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0(3), 51-60.
- 윤남수(2012). 잠재적 창업자의 창업동기 요인이 기업가정신 및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기업가정신의 매개효과, *산업경제연구*, 25(2), 1537-1557.
- 윤남수(2013). 사이버대학교 일반대학 학습자 간의 창업동기, 기업가정신 및 창업의지 비교 연구. *대한경영학회지*, 26(3), 491-510.
- 윤방섭(2004). 창업 의지의 결정요인: 개인특성 및 환경요인, *산학경영연구*, 17(2), 89-110.
- 이은수·이준우(2017).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조직구성원의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신뢰의 조절효과 분석, *인적자원관리연구*, 24(1), 113-133.
- 이재석·이상명(2015). 창업교육과 창업의지의 관계, *벤처창업연구*, 10(3), 61-74.
- 이지우(2000). 개인특성과 창업의지 사이의 관계, *중소기업연구*, 22(1), 121-146.
- 이현숙·백민정(2012). 청소년의 개인특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주관적 규범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15(2), 65-84.
- 임아름·김형철·윤종록(2014). 청년창업가의 기업가정신이 창업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창업학회지*, 9(3), 80-103.
- 정용희·하규수(2012). 예비창업자 개인적 특성요인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예비창업자 경력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유통경영학회지*, 15(4), 41-53.
- 조규호(2013). 사회적 기업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창업학회지*, 8(4), 57-83.
- 진주형·박병진(2014). 역할모델 노출이 청년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창업태도, 주관적 규범, 자기 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연구*, 36(4), 101-123.
- 최용석·이재은·강지원·김선구·한가록(2016). 청소년의 기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학업성적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1(5), 15-27.
- 최향림·하규수(2012). 직장인들의 은퇴 후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 *디지털정책연구*, 10(9), 195-212.
- 채서일·김주영(2016). *사회과학조사방법론(제4판)*, 서울: 비엔엠박스.
- Ajzen, I.(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s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2), 1-63.
- Aldrich, H., & Zimmer, C.(1986). *Entrepreneurship through social networks(The art and science of entrepreneurship p3-23)*, Massachusetts: Ballinger.
- Alvarez, S. A., & Busenitz, L. W.(2001). The Entrepreneurship of Resource-Based Theory, *Journal of Management*, 27(6), 755-775.
- Amit, R., Glosten, L., & Muller, E.(1993). Challenges to Theory Development in Entrepreneurship Research, *Journal of Management Studies*, 30(5), 815-834.
- Autio, E., H. Keeley, R., Klofsten, M., GC Parker, G., & Hay, M.(2001). Entrepreneurial Intent among Students in Scandinavia and in the USA. *Enterprise and Innovation Management Studies*, 2(2), 145-160.
- Ayodele, K. O.(2013). Demographics,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Locus of Control as Determinants of Adolescents' Entrepreneurial Intention in Ogun State, Nigeria, *European Journal of Business and Social Sciences*, 1(12), 59-67.
- Bae, B. Y., & Lee, J. H.(2015). A Study on the Regulatory Focus,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of College Students in Korea,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0(6), 215-223.
- Bae, K. H.(2011). A Study on the Concept of Social Entrepreneurship: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Korean Association for Policy Sciences*, 15(2), 199-227.
- Bird, B.(1988). Implementing Entrepreneurial Ideas: The Case for Inten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3(3), 442-453.
- Boyd, N. G., & Vozikis, G. S.(1994). The Influence of Self-Efficacy on the Development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and Action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8(4), 63-77.
- Carland III, J. W., Carland Jr, J. W., Carland, J. A. C., & Pearce, J. W.(1995). Risk Taking Propensity among Entrepreneurs, Small Business Owners and Managers, *Journal of Business and Entrepreneurship*, 7(1), 15-24.
- Carsrud, A., & Brännback, M.(2011). Entrepreneurial Motivations: What Do We Still Need to Know?,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49(1), 9-26.
- Chae, S. I., & Kim, J. Y.(2016). *Social science research method(the fourth edition)*, Seoul: B&M Books.
- Chell, E., Haworth, J. M., & Brearley, S.(1991). *The entrepreneurial personality: concepts, cases, and categories*, London: Routledge.
- Cheng, Y. H., & Ha, K. S.(2012). A Study on Individual Characteristic Factors Affecting Entrepreneurial Intentions of Startup Business Candidate, *Journal of Distribution and Management Research*, 15(4), 41-53.
- Cho, K. H.(2013). An Exploratory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on Social Entrepreneurial Intention, *Journal of Entrepreneurship and Venture Studies*, 8(4), 57-83.
- Choi, H. L., & Ha, K. S.(2012). Factors Affecting Startup Intention of Retired Office-Worker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0(9), 195-212.
- Choi, Y. S., Lee, J. E., Kang, J. W., Kim, S. G., & Han, G. R.(2016). Youth Entrepreneurship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Scholastic Performance,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1(5), 15-27.
- Cole, A. H.(1968). Meso-economics: A Contribution from Entrepreneurial History, *Explorations in Entrepreneurial History*, 6(1), 3-33.
- Collins, C. J., Hanges, P. J., & Locke, E. A.(2004). The Relationship of Achievement Motivation to

- Entrepreneurial Behavior: A Meta-analysis, *Human Performance*, 17(1), 95-117.
- Covin, J. G., & Slevin, D. P.(1988). The Influence of Organization Structure on the Utility of an Entrepreneurial Top Management Style, *Journal of Management Studies*, 25(3), 217-234.
- Crant, J. M.(1996). The Proactive Personality Scale as a Predictor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34(3), 42-49.
- Cunningham, J. B., & Lischeron, J.(1991). Defining Entrepreneurship,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29(1), 45-61.
- Davidsson, P.(1995). *Determinant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RENT IX Workshop, November 23-24, Piacenza, Italy.
- Dees, J. G.(1998). *The meaning of "social entrepreneurship": case studies in social entrepreneurship and sustainability (pp. 34-42)*, London: Routledge.
- Engel, G. V.(1970). Professional Autonomy and Bureaucratic Organization,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15(1), 12-21.
- Gartner, W. B.(1985). A Conceptual Framework for Describing the Phenomenon of New Venture Crea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0(4), 696-706.
- Gartner, W. B., Bird, B. J., & Starr, J. A.(1992). Acting as if: Differentiating Entrepreneurial from Organizational Behavior,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6(3), 13-32.
- Hmieleski, K. M. & Corbett, A. C.(2006). Proclivity for Improvisation as a Predictor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44(1), 45-63.
- Hines, G. H.(1973). Achievement Motivation, Occupations, and Labor Turnover in New Zealand,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58(3), 313-317.
- Jin, J. H., & Park, B. J.(2014). The Impact of Role Model Exposure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Entrepreneurial Attitude, Subjective Norm, and Self-efficacy, *Asia Pacific Journal of Small Business*, 36(4), 101-123.
- Lachman, R.(1980). Toward Measurement of Entrepreneurial Tendencies, *Management International Review*, 20(2), 108-116.
- Learned, K. E.(1992). What Happened before the Organization? A Model of Organization Formation,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7(1), 39-49.
- Lee, E. S., & Lee, J. W.(2017).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Entrepreneurship and Job Attitudes: Moderating Effect of Trust, *Journal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Research*, 24(1), 113-133.
- Lee, H. S., & Baek, M. J.(2012). Individual Characteristics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Examining the Moderating Role of Subjective Norm, *Journal of Entrepreneurship and Venture Studies*, 15(2), 65-84.
- Lee, J. S., & Lee, S. M.(2015).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ial Education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Focusing on Moderating Effects of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nd Environmental Factor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0(3), 61-74.
- Lee, J. W.(2000).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Asia Pacific Journal of Small Business*, 22(1), 121-146.
- Leibenstein, H.(1968). Entrepreneurship and Develop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38(2), 72-83.
- Lim, A. R., Kim, H. C., & Youn, J. R.(2014). The Effect of Youth Entrepreneurship on Entrepreneurial Behavior, *Journal of Entrepreneurship and Venture Studies*, 9(3), 80-103.
- Linan, F., Rodríguez-Cohard, J. C., & Rueda-Cantuche, J. M.(2011). Factors Affecting Entrepreneurial Intention Levels: A Role for Education.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and Management Journal*, 7(2), 195-218.
- Littunen, H.(2000). Entrepreneurship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Entrepreneurial Personality,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ial Behavior & Research*, 6(6), 295-310.
- Locke, E.(2000). Motivation, Cognition, and Action: An Analysis of Studies of Task Goals and Knowledge, *Applied Psychology*, 49(3), 408-429.
- Low, M. B., & MacMillan, I. C.(1988). Entrepreneurship: Past Research and Future Challenges, *Journal of Management*, 14(2), 139-161.
- Lumpkin, G. T., & Dess, G. G.(1996). Clarifying the Entrepreneurial Orientation Construct and Linking it to Performanc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1(1), 135-172.
- Lumpkin, G. T., Cogliser, C. C., & Schneider, D. R.(2009). Understanding and Measuring Autonomy: An Entrepreneurial Orientation Perspective,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3(1), 47-69.
- Lüthje, C., & Franke, N.(2003). The 'Making' of an Entrepreneur: Testing a Model of Entrepreneurial Intent among Engineering Students at MIT, *R&D Management*, 33(2), 135-147.
- Ma, H., & Tan, J.(2006). Key Components and Implications of Entrepreneurship: A 4-P Framework,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1(5), 704-725.
- Macko, A., & Tyszka, T.(2009). Entrepreneurship and Risk Taking, *Applied Psychology*, 58(3), 469-487.
- Markman, G. D., Baron, R. A., & Balkin, D. B.(2005). Are Perseverance and Self-efficacy costless? Assessing Entrepreneurs' Regretful Thinking,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26(1), 1-19.
- McGee, J. E., Peterson, M., Mueller, S. L., & Sequeira, J. M.(2009).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Refining the Measure,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3(4), 965-988.
- Miller, D.(1983). The Correlates of Entrepreneurship in Three Types of Firms, *Management Science*, 29(7), 770-791.
- Min, I. S., & Choi, P. S.(2010). *STATA advanced panel data analysis*, Seoul: STATA Association.
- Morris, M. H., & Lewis, P. S.(1995). The Determinants of Entrepreneurial Activity: Implications for Marketing, *European Journal of Marketing*, 29(7), 31-48.
- Nair, K. R. G., & Pandey, A.(2006). Characteristics of Entrepreneurs: An Empirical Analysis, *The Journal of Entrepreneurship*, 15(1), 47-61.

- Nandy, A.(1978). Motives, Modernity, and Entrepreneurial Competence,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91(1), 127-136.
- Naude, W.(2010). Entrepreneurship, Developing Countries, and Development Economics: New Approaches and Insights, *Small Business Economics*, 34(1), 1-12.
- Kanter, R. M.(1988). Three Tiers for Innovation Research, *Communication Research*, 15(5), 509-523.
- Kaufmann, P. J., & Dant, R. P.(1999). Franchising and the Domain of Entrepreneurship Research,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4(1), 5-16.
- Kim, H.(2012). The Entrepreneurial Factors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on Student,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7(1), 263-271.
- Kim, J. H.(2018). The Effect of Entrepreneurship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Focusing on Mediating Effects of Fear on Busines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3(4), 73-82.
- Kim, J. K., & Yang, D. W.(2012). An Empirical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the Entrepreneurship of Undergraduate Student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Focused on the Motivation for Participating in the Start-up Idea Contest as a Mediator,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6(4), 477-487.
- Kirzner, I. M.(1985). *Discovery and the capitalist process*,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Knight, F. H.(1921). *Risk, uncertainty, and profit*, Boston, MA: Houghton-Mifflin.
- Kolvreid, L. & Isaksen, E.(2006). New Business Start-up and Subsequent Entry into Self-employment,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1(6), 866-885.
- Kropp, F., Lindsay, N. J., & Shoham, A.(2008).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nd International Entrepreneurial Business Venture Startup,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ial Behavior & Research*, 14(2), 102-117.
- Krueger, N. F.(1993). The Impact of Prior Entrepreneurial Exposure on Perceptions of New Venture Feasibility and Desirability, *Entrepreneurship Theory & Practice*, 18(1), 5-21.
- Krueger Jr, N. F., & Brazeal, D. V.(1994). Entrepreneurial Potential and Potential Entrepreneur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8(3), 91-104.
- Krueger Jr, N. F., Reilly, M. D., & Carsrud, A. L.(2000). Competing Model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5(5-6), 411-432.
- OECD(2018). *Entrepreneurship at a Glance-Highlights 2018*. Retrieved from <http://www.oecd.org/sdd/business-stats/EAG-2018-Highlights.pdf>.
- Oh, H. D., Choi, J. Y., & Noh, J. P.(2016). The Effects of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Entrepreneurship on Entrepreneurial Intentions: Moderating effect of Hofstede's Cultures Dimension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1(2), 35-48.
- Pandey, J., & Tewary, N. B.(1979). Locus of Control and Achievement Values of Entrepreneurs, *Journal of Occupational Psychology*, 52(2), 107-111.
- Park, J. H., & Kim, J. H.(2014). The Influence of Social Entrepreneurship, Social Support, Entrepreneurial Process on Entrepreneurial Behavior, *Korean Business Education Review*, 29(2), 258-278.
- Reynolds, P. D.(2007). *New firm creation in the US: A PSED overview. foundations and trends in entrepreneurship 3(1) (pp. 1-150)*, Massachusetts: Now Publishers Inc.
- Schumpeter, J. A.(1942).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New York: Harper and Brothers.
- Scott, S. G., & Bruce, R. A.(1994). Determinants of Innovative Behavior: A Path Model of Individual Innovation in the Workplace,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7(3), 580-607.
- Sexton, D. L., & Bowman, N.(1985). The Entrepreneur: A Capable Executive and Mor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1), 129-140.
- Sexton, D. L. & Bowman, N. B.(1986). *Validation of a personality index*, In Ronstadt, R., et al. (Eds.), *Frontiers of Entrepreneurship Research*, Babson College, 40-51.
- Shadish, W. R., Cook, T. D., & Campbell, D. T.(2002). *Experimental and quasi-experimental designs for generalized causal inference*, California: Wadsworth Cengage Learning.
- Shane, S., Locke, E. A., & Collins, C. J.(2003). Entrepreneurial Motivation, *Human Resource Management Review*, 13(2), 257-279.
- Shaper, A., & Sokol, L.(1982). *Encyclopedia of entrepreneurship. (the social dimensions of entrepreneurship, p72-90)*, New Jersey: Prentice-Hall.
- Shaver, K. G., & Scott, L. R.(1992). Person, Process, Choice: The Psychology of New Venture Creation,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6(2), 23-46.
- Shin, J. S., & Lee, J. E.(2018). The Effect of Entrepreneurship of University Start-up Club Members on the Effectiveness of Start-up Club: Focus on the Moderating Effect of Club Members' Diversity,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3(5), 41-54.
- Sitkin, S. B., & Pablo, A. L.(1992). Reconceptualizing the Determinants of Risk Behavior,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7(1), 9-38.
- Slevin, D. P., & Covin, J. G.(1990). Juggling Entrepreneurial Style and Organizational Structure, *MIT Sloan Management Review*, 31(2), 43-53.
- Spreitzer, G. M.(1995). Psychological Empowerment in the Workplace: Dimensions, Measurement, and Validation,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8(5), 1442-1465.
- Turker, D., & Sonmez Selçuk, S.(2009). Which Factors Affect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European Industrial Training*, 33(2), 142-159.
- Uddin, M. R., & Bose, T. K.(2012). Determinant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Business Students in Bangladesh, *International Journal of Business and Management*, 7(24), 128-137.
- Van de Ven, A. H., Hudson, R., & Schroeder, D. M.(1984).

- Designing New Business Startups: Entrepreneurial, Organizational and Ecolog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Management*, 10(1), 87-107.
- Wang, C., Walker, E. A., & Redmond, J.(2006). Ownership Motivation and Strategical Planning in Small Business, *Journal of Asia Entrepreneurship and Sustainability*, 2(4), 1-27.
- Wooldridge, J. M.(2013). *Introductory econometrics: a modern approach*, Ohio: South-Western Cengage Learning.
- Wortman Jr, M. S.(1987). Entrepreneurship: An Integrating Typology and Evaluation of the Empirical Research in the Field, *Journal of Management*, 13(2), 259-279.
- Wu, S., Matthews, & Dagher, G. K.(2007). Need for Achievement, Business Goals, and Entrepreneurial Persistence, *Management Research News*, 30(12), 928-941.
- Yoo, B. H.(2015). The Effect of Achievement Needs and Entrepreneurship on the Start-up Intention: Focus on Mediation Role of Start-up Motivation,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0(3), 51-60.
- Yoon, B. S.(2004). Determinant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Environmental Factors, *Korean Business Review*, 17(2), 89-110.
- Yoon, N. S.(2012). The Effect of Potential Entrepreneurial Motivations on Entrepreneurship and Commitment to Starts-up: Mediating Role of Entrepreneurship,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and Business*, 25(2), 1537-1557.
- Yoon, N. S.(2013). The Comparative Study of Entrepreneurial Motivations, Entrepreneurship,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between the Students of the Cyber University and the Traditional University, *Korean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26(3), 491-510.
- Yunus, M., Moingeon, B., & Lehmann-Ortega, L.(2010). Building Social Business Models: Lessons from the Grameen Eexperience, *Long range planning*, 43(2-3), 308-325.
- Zhao, H., Seibert, S. E., & Hills, G. E.(2005). The Mediating Role of Self-efficacy in the Development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0(6), 1265-1272.
- Zhao, H., & Seibert, S. E.(2006). The Big Five Personality Dimensions and Entrepreneurial Status: A Meta-Analytical Review,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1(2), 259-271.
- Zahra, S. A.(1991). Predictors and Financial Outcomes of Corporate Entrepreneurship: An Exploratory Study,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6(4), 259-285.
- Zhang, P., Wang, D. D., & Owen, C. L.(2015). A Study of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University Students, *Entrepreneurship Research Journal*, 5(1), 61-82.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ship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Focusing on Panel Data Regression Model

Lee, Joon beam*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ship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This relationship has been conceptually addressed in many previous studies and has been empirically tested. However, this study is different from the previous studies in the following four points. First, we measured entrepreneurial intention by manipulating launching a start-up as a relative concept for employment, which is consistent with the conceptual definition of entrepreneurial intention (i.e. entrepreneurial decision making in the process of career choice). Second, it is distinguished from previous researches in that it uses the question of preference for "action" with regard to job choice. Third, we expanded the opportunity for discussion using the youth panel data of the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Fourth, the altruistic purpose is included in the category of entrepreneurship.

Empirical results showed that intentions of entrepreneurship were stronger when the need for achievement was intense, internal control tendency was intended, risk-taking propensity was sturdy, and autonomous tendency was high. However, innovation and aggressiveness are not statistically related to entrepreneurial intention. On the other hand, the altruistic tendency was found to have a negative correlation with entrepreneurial inten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provide meaningful implications for both private sector investors and government policy makers.

Keywords: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ial Intention, Need for Achievement, Locus of Control, Risk-taking Propensity, Autonomy, Altruism

* Ph.D. Candidat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joonbeomlee@gmail.com